

여수,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가동... 시민안전 최우선

집중호우·태풍·폭염 대비 분야별 재난대응 집중 점검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최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정현구 부시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사항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총괄과 등 주요 분야 12개 부서에서 자연재난 대비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사항은 ▲산사태 취약지구 주민대피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물놀이 안전 ▲온열질환 예방 ▲빗물받이 점검·준설 등 여름철 자연재난 안전으로 각 부서는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분야별 추진 상황과 보완사항을 보고했다.

정 부시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를 특별 안전점검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소관별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것으로 지시했다. 특히 이번 여름철 대책 기간에는 위험지역 통제와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읍면동장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지원단을 1:1 매칭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을 대비해 올해 기상청에서 신설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작업장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라는 내용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조했다.

정현구 부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 부서는 관리 시설과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재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시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

지할 방침이다. 재난 발생 시에는 상황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초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비상 근무 체계를 운영하며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산사태와 침수 우려 지역, 급경사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천과 배수로, 빗물받이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 저감시설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안부 확인과 건강 관리 지원을 강화해 온열질환 예방에 힘쓴다.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여수시 여름철 재난 안전대책 종합 점검회의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신대도서관, 전남 올해의 책 찾아가는 강연 운영

순천시립신대도서관은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신대도서관 열린강당에서 '전남 올해의 책 찾아가는 작가 강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작가 강연'은 전남 올해의 책 선정도서관의 저자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시민과 소통하는 순회 강연 프로그램이다.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며, 순천시에서는 신대도서관이 유일하게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2026년 전남 올해의 책 문학 분야 선정 도서인 『슬픔의 틈새』의 저자 이금이 작가가 '삶, 그 찬란한 슬픔'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슬픔의 틈새』는 『저기 내가 가면 안 돼요?』,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 이은 일제강점기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3부작의 완결편이다. 작가는 이번 강연을 통해 사할린 한인들이 겪은 슬픔과 한, 그 속에 피어난 기쁨과 행복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이유빈 기자

광양시 광영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혹서기 대비 현장 점검

광양시 광영동(동장 장미향)은 7월 3일 광영동 일원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현장을 점검하며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에는 그린생활시설지원 사업 참여자 50명과 내동네가꾸미 활동단 52명 등 총 102명이 참여해 ▲광영동사무소 주차장 ▲도촌입구 ▲금영공원 ▲광영고등학교 주변 등 4개 구역에서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시가지 화분 정비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광영동은 활동에 앞서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무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노인일자리 활동 수칙을 비롯해 ▲장마철 집중호우 ▲혹서기 행동요령 ▲골절·낙상 사고 예방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온열질환 예방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의 중요성 등을 안내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격려하기 위해 떡과 두유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깨끗한 광영동을 만드는 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장미향 광영동장은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온라인 현수막 접수시스템 도입으로 공정성과 행정 투명성 강화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광고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접수·배정 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신청부터 게시대 배정, 게시 일정 확인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게시대 배정 과정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됐다.

특히 게시료와 부가가치세 처리, 정산 업무까지 전산화되면서 행정의 업무 효율성과 회계 처리의 신뢰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 신청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과 게시 가능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 접수는 공식 웹사이트인 'www.곡성군현수막.com'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게시 가능 현황 조회부터 신청,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으로 군민 누구나 편리하고 공정하게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게시대 운영과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정게시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비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일규 기자

장길선 구례군수 여순10.19항쟁 구례위령탑 참배로 민선9기 임기 시작

장길선 구례군수가 공식 행보의 첫 발로 여순10·19항쟁 구례위령탑을 찾아 참배하며 지역의 아픈 역사를 보듬는 것으로 민선9기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위령탑 참배는 장길선 구례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공무원, 여순10·19사건 구례유족회 이규중 회장과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배단은 위령탑 앞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헌화를 진행하며, 과거 비극적인 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의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들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순10·19사건은 구례 지역에서만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해 오랜 세월 지역사회에 큰 상처로 남아있는 만큼, 신임 군수가 취임 첫 행보로 유족회와 함께 위령탑을 찾은 것은 희

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날 함께한 여순10·19사건 구례유족회 관계자는 "새로운 군정의 출발점에서 유족들과 함께 위령탑을 찾아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길선 구례군수는 여순10·19사건 위령탑 참배에 앞서 현충탑과 참전용사탑을 찾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민선 9기 동안 군민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구례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심선섭 기자

